

미분양 급감... 광주 준공 아파트중 121가구만 남아

작년의 10%대로... 전국서 가장 적어

치솟는 전세가 영향 매매수요 기지개

광주지역의 일반 미분양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미분양 주택은 전담보다 크게 줄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전세가들(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타 지역보다 높은 탓에 주택 매매수요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전국 미분양주택 3개월 연속 감소' 자료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광주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21가구로 전담보다 40가구(24.8%)가 감소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가구 미만을 기록했다. 6대 광역시인 부산(1054가구), 인천(2596가구), 대구(1015가구), 대전(624가구), 울산(597가구)과 비교해도 수치가 낮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큰 폭으로 감

소하고 있다. 지난해 말 3348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지난 6월 1233가구로 뚝 떨어진 뒤 매달 조금씩 감소해 9월 913가구, 10월 817가구를 기록한 데 이어 11월엔 377가구까지 줄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적은 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광주지역에 수년 새 신규 물량이 많지 않았던 데다 남은 물량의 분양이 수월해지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80%에 육박하는 높은 전세가를 탓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어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줄었다는 말도 나온다. 2015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조성과 관련,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한 점도 꾸준히 영향을 미쳤다.

실제 아파트 과잉공급이 일어났던 2008년 12월 기준 광주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5552가구에 달했지만 2010년 12월엔 1066가구로 줄었고, 2011년 12월엔 249가구까지 떨어진 뒤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2008년 12월 1만2384가구나 있었지만 4년 뒤인 2012년 12월 3348가구까지 감소했

고, 올해 들어 3000가구 가량이 또 다시 줄어들었다.

전남지역의 일반 미분양 주택은 11월 기준 2065가구로, 전담(1829가구)보다 236가구(12.9%)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전담(513가구)보다 소폭 늘어난 592가구를 기록했다.

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09가구로 전담(6만4433가구)보다 724가구가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8·28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전담에 비해 미분양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 두암동 '무등산 이스토리' 분양

국민 절반은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도시민들은 매일 탈(脫)도시의 삶을 꿈꾼다.

그렇다 보니 직장이나 학업 등 삶의 기반을 바꿀 수 없는 도시민들은 거주 편의함을 충족하면서도 자연의 쾌적함을 누리는 주거 입지를 바랄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 매봉산 자락의 도곡동 고대 아파트 단지가 탄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광주를 품고 있는 무등산 자락에도 자연의 혜택을 누리면서 도시민으로의 삶을 살 수 있는 두암동 무등산 이스토리가 최근 선보였다.

이스토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인근에 둔 것과 동시에 두암동 구의 병원·마트·학교 등 생활권이 잘 갖춰진 우수한 인프라와 제2순환도로를 통해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교통의 편리성 등을 갖췄다. 여기에 233㎡(77평형), 176㎡(62평형) 등 대형 평형에 고품격 디자인 소재로 마감해 광주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서 손꼽히고 있다.

이스토리 관계자는 "현재 분양 시장은 중소형 아파트가 대세지만, 입지조건이 좋아 대형 평수의 고품격 시공이 적합한 것이라 판단했다"며 "분양가격도 최소한의 이익을 추구하기로 결정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건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있다. 문의(1566-7293).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소외계층 치료비 전달

광산구 4명에 '사랑의 1004운동' 모금액 지원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박태식)는 2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청장 민형배)에서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수술·치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성금 1,000만원은 '농협 사랑의 1004운동' 모금액으로 지원되었으며, 광산구에 거주하는 '긴급지원' 대상 제외자와 사제관대상자 등과 같이 도움이 절실한 사회배려계층 4명에게 전달됐다.

'농협 사랑의 1004운동'은 광주관내 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성금

을 모아 난치성질환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현재까지 총 166명에게 1억8600만원을 지원했다.

박태식 본부장은 "앞으로도 농협은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수술·치료비 지원, 다문화가정지원, 장학사업 등을 펼쳐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지역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본부장 박태식)는 지난 24일 광산구청에서 지역소외계층에 대한 수술·치료비 10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농협 제공)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이익 2450만원

종사자수도 3.3명 불과...과도한 영업비용 몰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과도한 영업비용으로 몰살을 앓고 있으며 가맹점당 종사자수도 3.3명에 그치는 등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서비스업 부문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규모는 2억3270만원이었으나 영업이익은 2450만원에 그쳤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프랜차이즈 관련 통계도 최초로 작성해 공개했다.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작년 기준 17만5000개로,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 9만8616개(56.3%), 도·소

매 4만9920개(28.5%), 기타서비스업 2만6674개(15.2%)를 기록했다.

전체 종사자수는 57만3000명, 가맹점당 종사자수는 3.3명으로 집계됐으며, 업종별 종사자수는 숙박·음식점 32만9780명(57.6%), 도·소매 16만354명(28.0%), 기타서비스업 8만2835명(14.5%)이었다.

가맹점당 종사자수는 3.3명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액은 40조8000억원, 영업비용은 36조4780억원이었으며, 가맹점당 매출액은 2억327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12월 소비심리 '퐁퐁'

전달보다 4P 하락...9개월만에 기준치 이하로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9개월만에 기준치(100)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태식)는 2013년 12월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99로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3월(99) 이후 9개월만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이하면 경기를 비판하는 이들이 낙관하는 쪽보다 더 많고 100 이상이면 낙관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다는 의미다.

현재생활형편CSI는 89로 전달대

비 2포인트, 생활형편전망CSI도 94로 전달대비 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97로 전달대비 2포인트, 소비자출전망CSI도 106으로 전달대비 5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CSI는 76으로 전달대비 7포인트, 향후경기전망CSI도 86으로 4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취업기회전망CSI는 87로 전달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금리수준전망CSI는 96으로 3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현재가계지출CSI는 85, 가계지출전망CSI도 91로 각각 전달과 동일했으며 현재가계부채CSI는 108로 전달대비 4포인트 상승한 반면, 가계부채전망CSI는 102로 전달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부터 만 19세도 주택청약 가능

주택공급 개정안 시행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지고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면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

년층의 주택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시장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분할모집은 건설사가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다. 또 준공(사용검사)후 2년 이상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내줄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자를 보장받지 못했다.

/연남스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건설사가 주택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조립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제도가 없어 재건축 등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를 보장받지 못했다.

/연남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99.30 (-2.29)	488.87 (-2.21)	2.88% (0.00)	1059.30원 (0.00)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신제품 기적중얼기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결혼 정보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출신, 전주고등학교출신]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女	男	女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임페리얼클럽

강남역 7번출구70m 하나은행 B/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민주시 서산동) (063) 275-7766